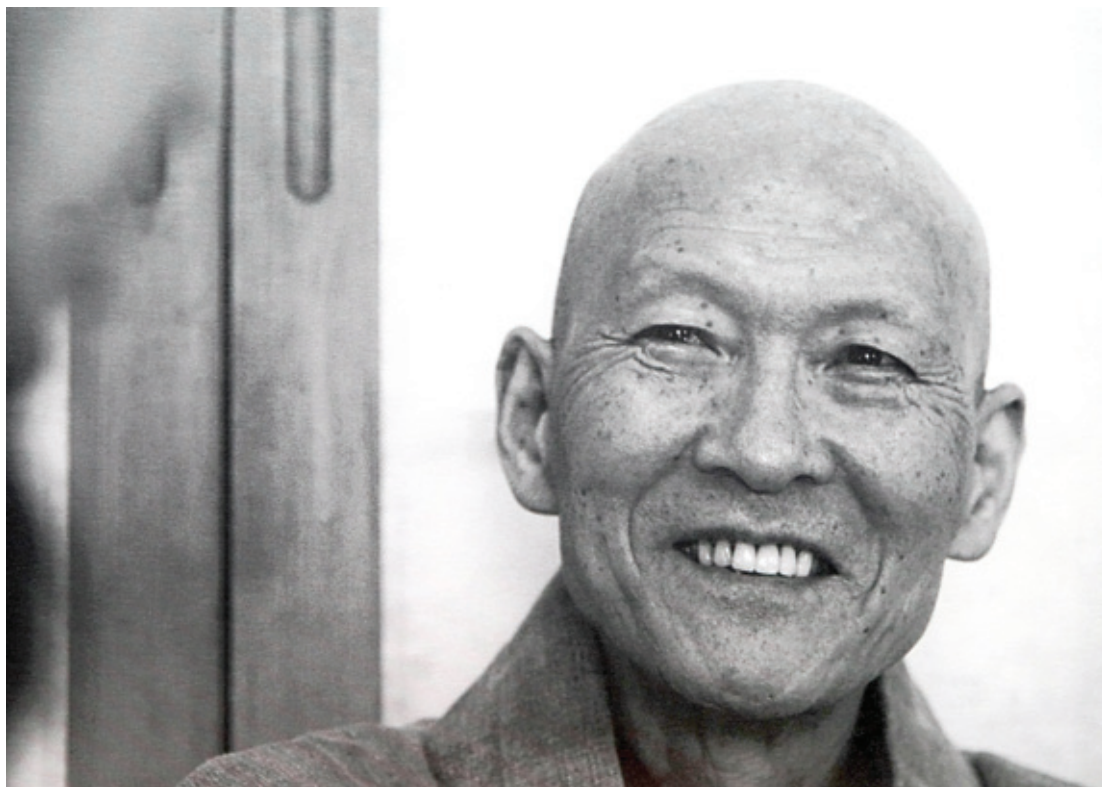


# “스님의 눈빛은 마음 속 욕심을 경계하는 죽비”

## 근승랑 작가, 법정 스님 입적 1주기 맞아 ‘비구, 법정法頂’ 사진집 출간



법정 스님의 입적 1주기가 지났다. 1주년 추모모임을 앞두고 길상사 주지였던 덕현 스님이 홀연히 모습을 감추는 등 시끄러운 잡음들도 있었지만, 스님의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한 발길들은 끊이지 않았다. 입적 1주기를 맞아 추모 여행, 추모 서적들이 출간 되는 등 스님의 흔적을 더듬기 위한 사람들의 행보도 줄을 이었다.

최근 사진작가 근승랑씨는 법정 스님 입적 1주기를 맞아 스님을 기리기 위한 추모 사진집과 법정 스님 법문 육성 동영상 제작했다. 또한 3월 2-8일 서울 관훈동 토포하우스에서 ‘비구, 법정法頂’ 추모 사진전을 함께 연다. (02)734-7555

### 신도들조차 몰랐던 스님의 일상 “사진집 통해 무소유 정신 느끼길”

무소유. 단 세 글자로 법정 스님은 세상을 충격에 빠트렸다. 하나라도 더 자기 것으로 만들기 급급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스님의 말씀은 세상의 죽비가 됐다. 스님의 말과 존재는 급기야 ‘법정 신드롬’을 일으킬 만큼 세간의 이슈가

됐다. 사람들이 이토록 스님에게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지 ‘무소유’라 하는 법정 스님의 말 때문이 아닌, 그 말빛을 갖기 위해 평생을 가난과 벗하며 살아온 수행자의 모습에 감동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스님의 곁에서 스님을 지켜본 지인들은 무서울 정도로 ‘무소유’ 정신을 실천하다 가신 분이리라 말한다. 스님은 사소한 물건 하나도 곁에 두는 법이 없었다. 스님이 남기신 건 평소 입으신 가사가 전부였다.

사진작가 근승랑씨가 출간한 ‘비구, 법정法頂’ 사진집은 그래서 의미가 깊다. 신도들조차 몰랐던 법정 스님의 알려지지 않은 일상 모습들을 담아냈기 때문이다. 사진 기자들 사이에선 법정 스님은 사진 찍기 힘든 인물로 유명하다. 워낙 자신의 모습을 남기기 싫어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근승랑 작가의 사진들은 더 가치 있고 귀한 자료이다.

“저와 스님만이 통하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제게 보내면 그때 카메라 셔터를 멈추고 렌즈를 놓아야만 했습니다.”

근승랑작 사진집에 수록된 사진들은 2004년 가을부터 2010년 3월, 법정 스님이 입적하시기 전까지의 기록들이 담겨있다. 2004년 일간지 사진기자로 일하던 작가는 취재차 길상사를 찾았다. 불교에 문외한이었던 그는 그 길로 7년 동안 출간 전 길상사에 들러 사진 공양을 올렸다.

“법정 스님의 모습을 카메라에 제대로 담기 시작한 건 사진공양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난 후 부터입니다. 가을 정기 법문을 마친 법정 스님이 경내 한 바퀴를 돌 때 사진을 찍었는데, 당시 스님의 눈빛은 날카로운 그 자체였습니다. 만약 그 때 그 눈빛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사진 공양은 이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눈빛은 마음 속의 욕심을 경계하는 죽비이자 사진 공양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었으니까요.”

그의 사진집에는 불제자로 사셨던 스님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신도들에게 범문하려 하기 위해 나서면서 “노래 부르러 가볼까?”라고 표현했던 스님, 불자에게 깊이 고개 숙이며 감사를 표하는 스님, 뺨뺨한 행진을 매는 스님,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차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향을 음미하는 스님,

안경을 끼고 글을 쓰시던 스님까지 다양한 스님의 모습이 18컷의 사진에 녹아있다.

작가는 “7년간 길상사에서 찍은 사진만으로 구성된 사진집이라 스님의 진면목을 알리는 데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처음부터 불교와 스님을 잘 알았더라면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을 텐데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나이 들수록 신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 대신 아집만 들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있다. 사진집을 통해 독자들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과 평생을 불제자로 사셨던 흔적을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구, 법정 | 근승랑 사진 | 지음 | 동아일보사 | 4만8000원 | 이은정 기자



### 한국의 전시감상②

### 고려 원감국사 총지 선사들의 ‘한중잡영(閑中雜詠)’

권박인산색(卷箔引山色)  
연통분간성(連筒分澗聲)  
종조소인도(終朝少人到)  
두우자호명(杜宇自呼名)

발을 걷어 산 빛을 끌어들이고  
대나무 통을 이어 시냇물 소리 나누어  
오네.  
아침이 다하도록 찾아오는 이 적은데  
빼꾸기는 제 이름만 불러대누나.

《동문선(東文選)》에 승려로서는 가장 많은 수의 시문이 실려 있는 고려 원감국사 총지(圓鑑國師沖止: 1226-1292) 스님은 당시 사대부 집안의 자제로서 19세에 장원급제했다. 스님은 일본 사신으로 파견되는 등 활발한 정계활동을 했다. 그러나 벼슬길[宦路]에 대한 회의 등을 이유로 29세에 출가수행을 시작해 61세 되던 해 조계산(曹溪山) 송광사(松廣寺) 제6세(世)가 됐다.

이 시는 한가로운 일상의 한 낱을 읊은 시로 산속에 사는 스님의 단출하고 맑은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스님은 이른 봄날 아침, 발을 걷고 대나무 통을 이어서 산 빛과 물소리를 한껏 가진다. 운천지에 가득한 물소리와 산 빛을 어찌 끌어오고 나누어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러나 스님은 역시 대선사다.

동사 ‘인(引)’과 ‘분(分)’을 사용함으로써 색과 소리로 표현되는 육경(六境)을 하나의 고유한 자성(自性)을 가진 개체로 완성시키고 의미 지운 것이다. 그뿐이랴! 마지막구의 ‘자호명(自呼名)’을 통해서 걸림 없는 대자연의 진여(眞如), 바로 불이(不二)의 도리를 설교했다.

빼꾸기는 어떤 인위도 조작도 없이 그저 자신의 품(稟)받은 고유한 자성(自性)을 발현시켜 올 뿐이다. 전구(轉句)의 ‘소인도(少人到)’가 내포하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 불이(不二)는 바로 스스로의 참다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때, 그리고 자신으로 인해 상대의 존재 가치를 희석시키거나 침범하지 않을 때, 나아가 각각의 모습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 자체로서 인정할 때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다. 불통(不遁)의 시대, 이 시는 소통과 화합의 진정한 의미와 그 답을 찾게 하고 있다.



원법 스님(성공대학교 문학박사)

## ‘적하수오’ 묘목 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들에게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적하수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문의 : 010-8442-4444 (상담) / 010-3534-8366 (농장)  
■ 묘목 재배 농장 :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176번지

## 생명 에너지를 균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기마을

### 민속죽염

22년 전통  
조상의 열과 온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함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국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굽은  
가 루 지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지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지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지죽염 230g 55,000원

2번 굽은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2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지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1985-1135 / 0541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ly.co.kr

##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텔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붓 공 사

##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상담대환영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